

“미래 시대의 종교 정체성”

: ‘종교를 넘어선 종교’와 ‘세속적 신비주의’(secular mysticism)

성해영(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와 새로운 영성의 등장

종교가 새롭게 출현해 성장하고 소멸해 가는 현상은 종교사에서 익히 목도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제프리 크리팔(Jeffrey J. Kripal)은 미국의 ‘에살렌’(Esalen) 공동체를 다루는 책, *Esalen : America and the Religion of no Religion*이라 지으면서, 그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슈피겔버그(Frederic Spiegelberg)가 만든 ‘종교가 아닌 종교(the religion of no religion)’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차용했다. ‘종교가 아닌 종교’ 혹은 ‘무종교의 종교’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 개념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종교성 이해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에 망명한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강의했던 슈피겔버그는 동서양 종교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성을 묘사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냈다. 이 문구는 전통적으로 종교라 간주되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종교성의 구현을 지칭한다.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는 표현 역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¹⁾ 일견 이

표현들은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전과 연결되면서도 매우 이질적인 종교성이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런 표현들에 함축되어 있는 미래 지향적 종교성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출현한 종교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하는 개념으로 ‘세속적 신비주의’(secular mysticism), 즉 비종교적인 맥락 속에 등장하는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성의 새로운 표출과 변화 양상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세속적 신비주의가 영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해 심층심리학 등과 맺는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비주의’를 포함해 ‘세속적 신비주의’, ‘영성’과 같은 이 글에서 주로 다룰 주요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한다. 그리고 세속적 신비주의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정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심층심리학과의 연관성을 몇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 봄으로써, 이 개념이 지닌 의미와 유용성을 제시한다. 또 글의 말미에서는 세속적 신비주의 개념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영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작업이 서구 사회의 종교 현상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종교성의 표출 현상, 특히 문화와 종교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라는 표현은 종교 개념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간명하지만 분명한 형태로 보여준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서 당연시되었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통해 사물의 정의와 우리의 정체성이 이전과 달리 규정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 점에서 종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1) ‘종교를 넘어선 종교’ 개념은 다음 책을 참고하라. 최준식, 『종교를 넘어선 종교』, (사계절, 2005)

을 가늠하는 데에도 큰 통찰을 주리라 믿는다.

세속적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주로 다룰 신비주의와 영성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선 세속적 신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 이 글은 신비주의를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 기초해 궁극적 실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으로 정의한다.²⁾ 이 정의에 따르면 신비주의란 ‘신비적 합일 체험’을 중심으로 이를 얻기 위한 수행, 그리고 획득된 체험에 입각해 궁극적 실재와 인간 및 우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세속적 신비주의’란 ‘종교적 신비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³⁾ 신비주의라는 명칭의 종교가 별도로 존재한 적은 없었지만, 종교 전통 내부에 신비주의적 흐름이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종교적’이라는 형용사는 애초에 불필요했다. 그러나 ‘세

2) 성해영,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 개념에 대한 오해와 유용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한편 종교학 사전의 신비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궁극적 실재의 근원이나 근거에 대한 앎이나 결합이 비전(vision), 엑스터시(ecstasy), 관조(觀照), 합일과 같은 의식 상태에서 다양하게 체험되거나,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일원론적이고 온정적인 관점이 교리나 수행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된다고 주장하는 전통들.” “Mysticism (Further Consideration),” in *Encyclopedia of Religion*.

3) 제너(R. C. Zaehner)는 신비주의를 ‘성스러운’ 신비주의와 ‘세속적’ 신비주의로 나누었다. 그는 약물로 유도되는 체험을 포함한 자연신비주의에 대해 종교전통의 신비주의가 윤리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변론하고 싶어했다. 다음을 참고하라. *Mysticism, Sacred and Profa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한편 약물이 종교적 수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헉슬리(Aldous Huxley), 스미스(Houston Smith) 등은 약물에 의해 유도되는 신비주의(drug-induced mysticism)가 신비적 수행과 동일한 체험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Aldous Huxley, *The Doors of Perception and Heaven and Hell* (New York : Harper & Row, 1990). Huston Smith, *Cleansing the Doors of Perception: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Entheogenic Plants and Chemicals* (Boulder: Sentient Publishing, 2003).

속적’ 신비주의란 현대에 등장한 현상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의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로로 삼아 세속적 신비주의의 개념에 접근해 보자.

사례 1) 내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난 뒤의 느낌처럼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다. 사실상 그 체험의 일차적인 특징은, 이 상태가 다른 사람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감각이라는 점이다. 그 감각은 베일이 벗겨지고 난 뒤 ‘진실한 실재’와 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들의 숨겨진 질서이며, 일상적으로는 무관심의 층들로 가려진 세계의 X선적 본질이다.

음악이나 전원 풍경 또는 사랑과 같이 정서적으로 황홀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유형의 체험을 구별하는 것은 그 체험이 분명히 지성적인, 아니 오히려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유의미하다. 그 체험에 가장 근접한 언어적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통일과 연관이요, 중력장이나 의사소통 기구의 그것과 같은 상호의존이다.’ 나는 정신적인 삼투성과 같은 것에 의해 우주의 연못과 소통하고 그것에 용해되어 버렸으므로, ‘나’라는 것은 존재하기를 그친다. 그것은 모든 긴장의 해소, 절대적 카타르시스, 모든 이해력을 넘어선 평화와 같이 ‘대양적(大양의)인 느낌’으로 지각된 용해의 과정과 무한한 확장이다.

사례 2)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불꽃처럼 붉은 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불을 생각했다. 어딘가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도시에서 일어난 엄청난 화재가 떠올랐다. 다음 순간에 나는 그 불이 내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묘사불가능한 지혜의 각성과 함께 거대한 환희의 감각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단순히 믿게끔 된 것이 아니었다. 우주가 죽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임을 똑똑히 본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내면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며, 우주의 질서는 확실히 모든 것이 각자와 전체의 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을 떠받치는 원리는 사랑이며, 따라서 각자와 전체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그 비전은 수초 동

안 지속되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기억과 생생한 느낌은 그 후로도 사반세기 동안 남아 있었다.

사례 3) 여전히 혼자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면서 걸은 후에, 절벽 끝에 도착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초록색 절벽과 태양, 바다, 소리들이 어우러진 속에서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일체(unity)다’라는 강력한 긍정성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사색하던 중이 아니었다. 나는 무엇을 보거나 육체적으로 느끼던 중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앞에 가까웠고, 그 때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묘하게도 내가 더 이상 절벽 위에 있지 않고 존재의 충만함인 햇빛의 무시간(無時間) 속으로 튕겨져 들어갔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의 일부였다.....나는 그 때, 그 체험 이전과 이후로 일체성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어떠한가’라는 식으로 안 것도 아니다.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체성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체험 이후에 나는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꼈다. 마치 ‘나는 뭐든 괜찮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환호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상의 세 사례는 서로 다른 사람이, 이질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체험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그들의 체험은 인지적 내용을 수반할뿐더러, 그들에게 큰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준 비일상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동시에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남긴 체험의 묘사만으로는 그들의 종교적 배경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실제로도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체험을 겪었다.

첫 번째 인용문은 한 때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했던 아서 쾨슬러(Arthur Koestler, 1905-1983)가 정부군의 포로로 잡혀 투옥되었을 때 경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⁴⁾ 독방에 감금된 그는

4) 쾨슬러(Arthur Koestler)의 다음 책을 참고하라. *The Invisible Writing*, New York: The Macmillan

동료들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고,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의식이 확장되면서 신비적 합일 체험을 하게 된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충격적인 체험으로 인해 그는 석방된 후에 철저한 유물론자에서 신비주의자로 회심한다. 그러나 인용문 어디에도 그의 종교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종교적’ 표현이나 색채를 찾아보기 어렵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의 의사였던 리차드 버크(Richard M. Bucke, 1837-1902)가 런던 근교에서 갑작스럽게 그를 찾아왔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버크는 후에 자신의 경험을 ‘우주 의식’(cosmic consciousness)의 체험이라 명명했고, 이를 계기로 동서양의 종교 전통에서 비슷한 체험의 기록을 찾고 분석한 저서를 남긴다. 버크의 저술은 이후에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의 신비주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위 인용문은 제임스의 저서 『종교 경험의 다양성』에도 그대로 인용된다.⁵⁾

세 번째 사례는 알리스터 하디(Alister Hardy, 1896-1985)가 수집한 자료 중 하나로, 아일랜드 여성의 체험을 보고한 내용이다.⁶⁾ 그녀는 스물한 살 때 겪었던 체험을 16년이 지나서 위와 같이 보고했고, 그녀의 체험은 하디가 설립한 종교체험연구센터(RERC : Religious Experience Research Center)의 데이터(사례 1441번)로 수집되었다. 그녀는 가톨릭적 배경을 가

Company, 1954, pp.353-354. (인용문은 『신비사상』 p.364을 기본으로 삼았음). 괴슬러가 사용한 ‘대양적 느낌’은 프로이트의 저서 『문명 속의 불만』에 등장한다. 대양적 느낌과 신비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프로이트 종교심리학과 비교(comparison)의 정신: 승화(sublimation) 및 대양적(大양의) 느낌(oceanic feeling)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27집, 2008.

5) Richard M. Bucke, *Cosmic Consciousness : A Study in the Evolution of the Human Mind*. (New York: A Citadel Press Book, 1993), pp.7-8. 삼인칭(He) 주어를 사용해 기술된 이 책의 체험담은 제임스에 의해 1인칭(I) 주어로 바뀌어 한 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인용되고 있다.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p. 435.

6) 생물학자였던 알리스터 하디(Alister Hardy, 1896-1985)는 그의 평생 관심사였던 인간의 종교 체험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은퇴 이후에 종교체험 연구 센터(RERC: Religious Experience Research Center)를 설립한다. 본문의 두 번째 사례는 다음 책에 인용되어 있다. Jordan Paper(2004), *The Mystic Experience: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pp.19-20.

졌지만, 체험을 가졌을 당시에는 가톨릭에서 멀어진 무신론자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적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 역시 매우 일상적인 용어로 자신의 체험을 기술하고 있는 탓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기록이라 보기 어렵다.

인용한 사례들에는 비일상적인 신비적 합일 의식 상태에서 인지적 통찰과 함께 강력한 정서적 느낌을 가졌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만약 신, 궁극적 실재, 은총, 섭리와 같은 종교적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면 종교인의 보고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신비체험은 ‘세속적’ 맥락, 즉 종교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비주의는 오래된 종교적 현상으로 제도화된 종교와 분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인용한 사례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무신론자나 유물론자 역시 종교 전통 속에서 발견되던 유형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신비적 합일 체험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종교 바깥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종교의 테두리 바깥에서 발생한 신비체험을 핵심으로 삼기에 ‘세속적 신비주의’라 일컬어진다.

세속적 신비주의는 지배적인 종교가 사라지고 세속화된 영역이 늘어가면서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다. 즉,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된 이후, 달리 표현해 신비적 체험과 특정 종교와의 필연적인 연결 고리가 사라진 이후에 가능해진 개념이다. 모든 구성원이 기독교인인 공동체 속에서 세속적 신비주의는 불가능하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간에 체험이 기독교적 맥락과 교리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속적 신비주의가 ‘교회 밖의 신비주의’(un-churched mysticism)라고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다.⁷⁾

7) 파슨즈(William B. Parsons)는 “심리학과 비교적 대화(psychology-comparative dialogue)”에 주목한다. 많은 경우 심리학 그 자체가 단순히 “종교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게 아

이처럼 세속적 신비주의는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일어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핵심으로 삼는다.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신비체험은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게 된다. 이제 그들의 체험은 더 이상 특정 종교의 교리 체계로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세속적 신비주의는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되고, 세속화된 영역이 넓어진 현대에서나 가능해진 사건이다. 나아가 세속적 신비주의는 제도화된 종교와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 불일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영성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SBNR)’라는 영성의 출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얼랜슨(Sven Erlandson)이 그의 책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 미국에서의 종교적 혁명의 요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⁸⁾ 그리고 로버트 풀러(Robert C. Fuller)가 뒤를 이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교회 밖으로 나간 미국 이해하기』라는 저서에서 그 함의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⁹⁾

두 사람의 주장은 명료하다.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이런 욕구는 ‘종교적’이라는 단어가 아닌 ‘영적’(spiritual)이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영적인 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영적인 갈망은 물질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 진리를 개인의 내면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로 구현되고 있다고 역설한다.

나라, “근원적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신학적인 것이든, 혹은 성스러운 무의식이든 간에 종교의 목적 그 자체를 밝히는 대화”에 깊이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William B. Parsons and Diane Jonte-Pace, "Introduction: Mapping Religion and Psychology," in *Religion and Psychology: Mapping the Terrain, contemporary dialogues, future prospects* (New York: Routledge, 2001).

8)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 Call to Religious Revolution in America*, Iuniverse Inc, 2000

9)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처럼 두 책은 최근 종교를 둘러싼 지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SBNR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요컨대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추구되고 구현되는 최근의 종교성은 영성 개념으로 적절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영성의 구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압축하는 영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

현대는 소수 공동체를 제외하고, 종교의 독점적 권한이 축소된 시기이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게 되면서, 개별 종교가 그간 누려왔던 독점적인 권한이 사라졌다. 이제 종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변모했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와 권리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베버가 ‘탈주술화’(disenchantment)라고 표현한 것처럼 합리성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은 사회의 ‘세속화’(secularization)를 가속화 시켰다. 교육, 정치, 경제 등의 분야가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규율에 의해 제어되는 현상은 다종교 상황과 결합해 개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축소 시켰다. 동시에 과학적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규율했던 종교적 세계관을 급격하게 대체해 왔다. 결국 공동체의 전체적인 구성과 운영을 포함해, 개인들의 관계는 비종교적인 원칙과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또 문자 해독율의 높아지면서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개념 역시 이에 비례해 커졌으며, 사회 복지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평등의 개념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 권위의 지위에 변화를 초래했다. 종교인과 종교 조직은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영향력을 상실했고, 비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신도들에게조차 과거와 같은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의 교세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었던 종교적 열

망, 즉 인간의 종교성이 자연스럽게 조직화된 종교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래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였던 ‘영성’ 혹은 ‘영적인’이라는 단어가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구현되는 종교적 태도와 열망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애초에 영성 개념은 기독교 전통에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원리로 기능했다. 라틴어 *spiritus*가 본디 호흡(*pneuma*)이라는 희랍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이 개념은 물질적인 육체를 움직이는 비물질적인 차원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 전통이었던 서구 사회에서 영성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제도화된 교회와 분리가 불가능했다. 영성 개념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교리적 관점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세속화 경향이 가속화되는 것을 포함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종교가 개인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자리 잡자,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영성의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SBNR’로 표현되는 현대적인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물론적인 세계관 혹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영성’이라는 명사와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비물질적 차원을 인식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나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적 세계관과 분명히 통하지만, 특정한 종교의 세계관이나 교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SBNR이라는 표현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근거하되, 제도화된 전통 종교의 교리를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띤다.

개별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수용한다는 특성은

10) 알바네세(Catherine L. Albanese)는 초절주의를 포함해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적 경향을 형이상학적 종교(metaphysical religion)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A Republic of Mind & Spirit : A Cultural History of American Metaphysical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6), pp.6-16.

통계로도 확인된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 수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31.5%)이며, 그 뒤를 이슬람(23.2%)이 잇고 있다. 그리고 16.3%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종교에 속해 있지 않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 신을 포함해 초월적인 존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비율은 프랑스의 경우 30%, 미국의 경우에는 무려 68%에 달했다.¹¹⁾ 이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베버의 예상과 달리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종교를 가지지 않는 비율은 채 전 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이처럼 현대에는 전통적인 종교와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화된 종교의 영역 밖, 즉 세속적 맥락에서 신비적 합일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종교의 전통적인 교리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목도되면서 세속적 신비주의가 등장한 것이다.¹³⁾ 앞서 인용한 세 사례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경험이 종교적 색채가 없는 일상적인 용어, 더 정확하게는 개인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심리적 용어로 기술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제도화된 종교에 포섭되지 않는(not religious) 종교적 세계관, 즉 영성(but spiritual)의 출현과 그 특성은 다음에서 살펴볼 것처럼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세속적 학문 분야인 심층심리학(depth psychology)적 관점에서 더욱 명료하게 포착될 수 있다.

세속적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

1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http://www.pewforum.org/'의 'global-religious-landscape'

12) 종교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11억 6천만 명 중에서 62.2%인 7억 명이 중국 본토인이다. 그런데 이 중 7%는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믿고 있으며, 44%는 친지나 조상의 무덤에 예를 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http://www.pewforum.org/2012/12/18/global-religious-landscape-unaffiliated/

13) 가톨릭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이 의혹이나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역시 넓게 보아 체험과 해석들의 불일치 가능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세속적 맥락에서 발생한 신비적 합일 체험의 묘사에 개인 심리의 기술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듯, 세속적 신비주의는 심리학, 그 중에서도 심층심리학과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

첫째, 심층심리학은 종교 체험을 매개로 제도 종교와 인간의 종교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포착했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종교,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교적 의례와 교리 체계가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쉘라미어마허(Schleiermacher, 1768-1834)를 시작으로 종교는 개인이 절대적 존재 혹은 보이지 않는 차원과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관점이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질적 차원과 초월적 차원을 매개하는 통로로 개인의 종교 체험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사상가는 윌리엄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인 심리학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는데,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종교 경험의 다양성』에서 종교의 핵심 요소는 개인이 보이지 않는 차원과 맺게 되는 관계라는 주장을 폈다.¹⁴⁾ 종교 체험이 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종교 경험 중에서도 신비적 합일 체험을 근간으로 하는 신비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제임스는 종교 체험을 통해 인간의 ‘잠재의식’(subliminal consciousness)과 같은 심층 의식의 차원이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아의식과 같은 표면적인 의식이 전체적인 의식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전형적인 심층심리학적 관점을 표했다. 그 점에서 제임스는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프로이트와 융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도화된 종교와 종교 체험을 중심으로 삼는 개인의 종교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¹⁵⁾

14)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p. 36.

15) 마음의 심층적 차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제임스, 융은 동일한 입장에 선다. 또 그들 모두에게는 신비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심층 의식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독교를 포함해 제도화된 종교 그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다음

둘째, 심층심리학은 인간의 종교 체험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이 고정 불변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일련의 상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의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종교 체험을 의식변형상태(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활용해 연구하는 흐름이 이후에 등장한다.¹⁶⁾ 예컨대 제임스가 제시한 신비적 합일 의식 상태와 그 네 가지 특성은 인간의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¹⁷⁾

제임스의 방법론은 이후에 신비적 합일 체험을 포함해 인간의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결정적인 접근법을 제시했고, 앞서 다룬 세속적 맥락의 신비체험을 포착해 분석하는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다.¹⁸⁾ 이로써 신비적 합일 체험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체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꼼꼼하게 성찰하게 만듦으로써, 신비주의가 종교 전통의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도와주었다. ‘자연 신비주의’(nature mysticism)의 개념 등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자연발생적(spontaneous) 신비체험처럼 종교적 수행 없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신비적 합일 체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이처럼 심층심리학적 전통에 힘입은 인간 의식 이해는 신비적 합일

글을 참고하라. 「프로이트 종교심리학과 비교(comparison)의 정신: 승화(sublimation) 및 대양적(大양의) 느낌(oceanic feeling)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27집, 2008.

16) 제임스는 의식이 다양한 상태들로 구성되며, 그 상태들 중 일부가 종교적 차원, 즉 형이상학적이고 초심리학적 실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pp. 422-423. 변형의식상태에 관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Charles T. Tart(ed),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0)

17) 네 가지 특징은 noetic quality, ineffability, passivity, transiency이다.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pp. 413-416.

18) 『종교 경험의 다양성』 출간 100주년을 맞아 출판된 *Irreducible Mind*와 종교 경험을 비정상(abnormal)이 아닌 비정형적(anomalous) 체험이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을 통해 연구하려는 *The Varieties of Anomalous Experience*는 이러한 흐름의 현대적인 응용이다. Cardena Etzel (ed), *Varieties of Anomalous Experience: Examining the Scientific Evidence*,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19) Nona Coxhead, *The Relevance of Bliss: A Contemporary Exploration of Mystic Experience*, 28. Jordan Paper, *The Mystic Experience: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154.

체험의 다양한 면모를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세속적 신비주의라는 현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심층심리학과 신비주의는 인간 마음의 보다 깊은 차원에 주목하게 했다. 신비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에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노스(Plotinus)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강하지 않은 부분이 인간 영혼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지주의는 인간의 영혼에는 신적 세계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만드는 신성의 불꽃(divine spark)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마음이 초월적, 궁극적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동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심층심리학 역시 비슷한 관점을 취한다. 인간의 잠재의식을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 체험이 일어나는 장이라 여겼던 제임스를 비롯해, 신비주의적 수행이 뜻밖에도 정신분석학이 추구하는 무의식의 깊은 층위를 드러낸다고 주장한 프로이트,²⁰⁾ 대극의 통합(coincidentia oppositorum)을 통해 만달라(mandala)가 상징하는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의식의 최종 목표라는 융의 주장은 의식의 심층적 차원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심층심리학의 통찰을 발전시킨 ‘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에서는 분명한 형태로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이 결합하면서, 심리학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로서의 심리학’(psychology as religion)으로 변모하기도 한다.²¹⁾

이처럼 의식의 심층에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한 층위가 존재한다는 심층심

20) “특정한 신비주의적 수행이 마음의 각기 다른 영역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뒤집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에고와 이드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지는 의심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의 치료적 노력이 이와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분석학 강의> p. 109. (필자의 번역)

21) ‘종교로서의 심리학’이라는 개념은 다음 두 글을 참고하라. William B. Parsons, “Introduction: Mapping Religion and Psychology,” in *Religion and Psychology: Mapping the Terrain, contemporary dialogues, future prospects*. “Psychology of Religion” in *Encyclopaedia of Religion*을 참조하라.

리학의 견해는 인간의 마음이 통로가 되어 존재의 궁극적 차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 견해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 점에서 세속적인 학문 분과인 심층심리학은 뜻밖에도 종교 전통의 테두리 밖에서 발흥한 세속적 신비주의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나아가 심층심리학과 세속적 신비주의의 공통점은 ‘치유’라는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넷째, ‘치유’라는 관점에서 심층심리학과 세속적 신비주의는 그 궤를 같이 한다.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차원을 의식화함으로써 더 온전한 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심층심리학의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컨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가장 큰 명제는 무의식의 의식화이다. 제임스에게 신비적 합일 체험 등을 통해 잠재의식의 충위를 개인이 의식하게 되는 사건은 건강한 영혼(healtht mind)을 만들어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또 융에게 개인적/집단적 무의식의 의식화와 통합을 통한 개성화(individuation) 과정은 영혼의 과제로 제시된다.

세속적이건 종교적이건 신비주의 역시 개인적인 마음을 통로로 삼아, 신비적 합일 체험을 얻고 궁극적 실재를 인식하는 사건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신비적 합일 체험은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의 차원을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층심리학과 신비주의는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은 전체의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존재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일이자 삶의 의미 발견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전체성의 인식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변모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아의 의식적 측면이 인간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심층심리학), 물질적인 차원이나 인간 의식의 개인적인 차원이 더 큰 존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신비주의), 온전성의 인식과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심층심리학과 신비주의는 상통한다.

개인이 비가시적(비물질적) 차원을 인식하고 양자의 적절한 관계를 회복

하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전체성의 인식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전체성의 인식을 통해 부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그저 육체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니며, 인간의 마음 역시 개인적이며 의식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눈에 보이는 차원은 비가시적 차원과 함께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런 총체적 앎 없이는 존재론적 온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심층심리학과 신비주의의 근본 주장이다. 그 점에서 치유는 전체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기초해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아울러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근본적인 추동력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신비주의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 실재와 결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향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세속적 신비주의는 심지어 수행이나 교리적 이해가 없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기로 신비적 합일 체험이 추구되고, 이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발견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세속적 신비주의라는 자연발생적인 방식으로 인위적인 노력이나 교리적 이해 없이도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층심리학 역시 의식에 내재하는 통합과 전체성을 인식하려는 경향성을 강조한다. 서로 상충하는 대극을 통합해 전체성을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성화라는 명칭으로 정식화하면서, 이것이 인간 의식의 근원적인 지향점이라는 용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신비적 합일 체험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 종교적 감수성의 핵심이라는 제임스의 주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치유란 존재론적 전체성을 인식하고, 삶의 장에서 이런 인식을 구현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 진다. 전일성(全一性) 혹은 전체성의 회복과 실천이라는 지점에서 신비주의와 심층심리학은 결국 만나게 된다.

경계 가로지르기와 새로운 종교적 정체성의 모색

제도화된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실히 목도된다. 동서양의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 밖의 종교성, 즉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추구하려는 노력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뉴에이지’(New Age)라고 지칭되는 종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영적 추구 노력이 대표적이다. 제도화된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의식 변형의 체험과 영적 통찰을 얻겠다는 열망은 출판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²²⁾ 이 과정에서 동서양의 종교의 핵심을 신비적 합일 체험과 같은 사건으로 파악하고,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온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치유하겠다는 경향 역시 발견되고 있다.

또 일상적인 언어로 삶의 사건이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준다는 치유에 대한 열망 역시 어느 때보다 강력해 졌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법륜 스님과 혜민 스님의 저서는 종교적이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심리 치유의 내러티브가 구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또 비불교인과 아예 종교가 없는 이들이 불교계의 템플 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 역시 특정 종교의 테두리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심리적 위안을 얻겠다는 의도를 잘 드러낸다. 이 점에서 세속적 신비주의 개념은 종교 안에서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현상을 포함해, ‘힐링’을 의도하는 종교인들의 저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문화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틀을 제공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적 테두리 밖의 종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도 있다. 한국 갤럽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38%, 개신교인의 34%, 천주교인의 29%, 비종교인의 21%가 윤회론을 믿는다는 것이다.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라.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집문당, 2014)

이런 비율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조사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²³⁾ 전통적으로 불교의 교리로 일컬어지는 윤회론이 종교 여부와 무관하게 혹은 자신이 믿는 교리에 반해 믿어진다는 사실은 개인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제도화된 종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속적 신비주의나 SBNR으로 대변되는 영성의 함의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전통적인 정체성 규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해 졌다. 세속적 신비주의 또는 교회 밖의 신비주의라는 표현은 종교, 영성, 신비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 규정이 적실성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초월’(trans-), ‘너머’(meta-), ‘심층’(depth-)과 같은 접두어는 전통의 경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종교는 종교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더 큰 전체성의 인식으로 귀결된다. 영성이 제도 종교와 분리되며, 신비주의가 세속적 맥락에서 발현되는 상황에서 종교와 종교성의 의미는 새롭게 물어져야만 한다. 전통적인 제도나 조직 없이도 종교성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라는 외양을 취하는 영성, 급진적인 개인주의에 기반한 뉴에이지 영성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뉴에이지는 비조직적이며 개인화된, 즉 세속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신비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근원적인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영적 열망으로 요약될 수 있는 세속적 신비주의는 그 자체로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확장된 개인의 권리와 주체성이 종교 영역의 보다 자유로운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야기할 위험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즉, 개인주의적

23) 다음을 참고하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28>

영성 추구가 이기적인 이익 추구로 귀결될 경우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동시에 제도화된 종교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지혜를 간과할 우려도 크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포함해, 개인이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수행 과정의 문제, 종교 체험으로 인해 야기되는 예고의 팽창 등이 그 대표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종교와 개인의 종교성 사이의 간극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 여겨진다. 또 영성이 대중문화를 포함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종교적인 영역으로 간주된 분야로 확산되는 현상 역시 점증할 것이다. 이에 비례해 ‘제도 종교 바깥에서’(not religious)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를 통해 존재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는 개인들의 ‘영적인’(spiritual) 노력 역시 활발해 질 것이다. 기존 종교가 이를 수용하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다. 세속적 신비주의의 등장이 그 생생한 실제 사례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일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변화를 우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